

# 빙엔의 힐데가르트의 채색화 <사파이어 청색 인간>에 관한 고찰

차 영 순 (이화여자대학교), 심 종 혁 (서강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색채의 상징성과 의미
- III. 도상학적 상징성
- IV. 힐데가르트의 우주관과 신학적 함의
- V.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베네딕도회 수녀로서 가톨릭 교회에서 성녀로 선포된 빙엔의 힐데가르트(St. Hildegard von Bingen, 1098-1179)는 시인으로서, 작곡가로서, 그리고 미술가로서 뿐 아니라 의학이나 약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르네상스 이전의 르네상스의 여인’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재능을 보인 여인이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저서들을 남겼다. 우리는 힐데가르트의 삼부작이라 불리는 작품들 중 *Scivias*(하느님의 길을 알라)의 둘째 책의 두 번째 환상을 묘사한 <사파이어 청색 인간>이라는 채색화를 중심으로 거기에 표현된 색채와 도상학적 상징성을 분석하여 그 안에 담긴 우주관 및 신학적 함의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사파이어 청색인간>  
*Man in Sapphire Blue*

힐데가르트의 저서 *Scivias*의 둘째 책 중 두 번째 비전의 삽화 <사파이어 청색 인간>은 사각형의 틀 내에 두 개의 동심원이 사파이어의 푸른색으로 채색된 인물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 사파이어 청색 인간은 입고 있는 옷뿐만 아니라 얼굴, 손 등 인물 전체가 온통 푸른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그의 시선은 화면의 전면을 향해 그림을 보는 사람을 응시하고 있으며, 두 손은 관람자를 향해 열어 펼친 자세, 즉 오란스(Orans)를 상기시키는 자세를 하고 있다. 옷의 주름 묘사로서 판단컨대 왼쪽 무릎은 오른쪽에 비해 약간 앞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몸의 윤곽을 감싸고 있는 막처럼 얇은 공간은 청색 인간의 정수리 부분에서 열려있어 은색의 외부 동심원으로 직접 연결된다. 그에 바로 인접하고 있는 황금색의 둥근 원은 청색 인간의 몸 전체를 두르고 있고, 그 외곽을 다시 은색의 원형 고리로써 에워싸 두 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청색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일종의 만달라(mandala)를 형성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두 개의 원형 공간에는 공통의 중심점으로부터 동심원을 그리며 발산되는 듯한, 마치 에너지 장(場)을 떠오르게 하는 파상선들이 표시되어 있다. 외부 은색의 파상선은 내부 황금 동심원 내의 파상선보다 그 간격이 더 커서 중심으로부터 방사되는 힘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희석됨을 암시하고 있다.

## II. 색채의 상징성과 의미

중세, 특히 힐데가르트의 시대 이전에는 청색을 부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겼고, 기술적으로도 청색은 만들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색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힐데가르트가 행한 청색의 시각적 표현이나 그에 대한 텍스트에서의 언급은 예외적이라서 주목을 끌고 있으며,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청색이 비로소 새로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중세 시대에 성모 마리아의 옷을 표현할 때 청색을 사용하면서부터이다. 중세 이전의 성모는 흑색 등 주로 어두운 색채로써 묘사되었을 뿐이라는 사실과 중세 교회에서는 색, 색채를 물질로 생각하여 성상파괴 논쟁이후 색채의 사용을 멀리하던 분위기가 있었다.

이후 가톨릭교회의 전례에서 색이 점차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는데, 무엇보다도 12세기에 발달하기 시작한 고딕 건축에서는 스테인드글래스를 채용함으로써 새로운 관점 하에 빛과 색을 다루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이 세상과 교회 내에 색채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색을 고루 확산시키는 것은 빛이며, 그것은 신을 위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개념이 건축 및 시각예술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신학적 논쟁과 갈등 및 발전을 통해 청색에 대한 기존의 인식 역시 완전히 뒤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힐데가르트의 청색 인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연구는 예술·문화적 측면과 신학적 시각에서 의미 있는 주제라고 판단된다.

힐데가르트가 청색을 도입한 의도와 그 상징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태양은 토파즈와 사파이어 색, 즉 자비와 신성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것은 육화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다. ‘너는 빨기세탁과 같이 영원한 사제이니라.’ [시 109,4]. 자비는 토파즈에서, 그리고 신성한 사랑은 사파이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인류를 위한 제의(祭衣)처럼 이 사제는 이 덕들을 입는다.” [The Letters of Hildegard of Bingen I Letter #86, 197] 여기서 사파이어 푸른빛은 하느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빛깔로서 영원한 사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빛으로 여겨지고 있다. Scivias 셋째 책의 삽화에서도 히야신스 꽃의 짙은 하늘 빛-청색(deep sky-blue)으로 자비(charity, mercy)를 표현하고 있다. 힐데가르트는 자비의 육화신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상은 자비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성자께서 겹손으로써 육화하기로 계획된 바, ...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인간의 몸을 취하도록 하셨을 때 참되고 불타는 열렬한 자비의 등불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 자비는 위격(位格)으로나 옷(tunic) 모두에서 히야신스 같이 짙은 하늘 빛-청색이다; 히야신스가 그 위에 놓이는 어떤 것이든 환하게 비추듯, 그분의 인성 즉 육화하신 성자께서는 천국에 속하는 모든 신앙인들을 비추기 때문이다.” [Scivias III, viii, 442-3] 이 텍스트에서 성자는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는 히야신스처럼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추는 주체로 설명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청색은 성삼위 하느님을 감싸고 있는 온 공간을 가득 채운다. 즉, 힐데가르트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말씀인 성자의 육화 신비로 인하여 하느님의 사랑인 방사하는 청색으로써 비추어지고, 밝혀지며, 가득 퍼지고, 채워진다. 그것은 한없이 무한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깊고 푸른 신비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힐데가르트가 의도하는 청색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순수와 청빈 등의 색채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녀의 청색은 나름의 고유한 표현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는, 하느님의 신성한 사랑과 자비를 의미한다. 만약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토파즈가 토파즈-청색(topas blue)이라면 청색은 자비의 의미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 속 청색

의 인간은 육화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다가온다.

힐데가르트는 자신이 본 사파이어 청색 인간의 환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나는 밝은 빛을 보았다. ... 이 빛 안에 사파이어 청색의 인간이 있는데 조용히 타오르는 불이 빛나고 있었다. ... 밝은 빛은 은은히 빛나는 불을 휩싸고 있었고, 은은히 빛나는 불은 밝은 빛을 휩싸고 있었다; ... 밝은 빛과 은은히 빛나는 불이 사람 형상 전체에 퍼부어졌다. 그리하여 이 셋은 하나의 잠재적 힘 안에서 하나의 빛을 이루었다.” (밑줄: 필자 강조) {*Scivias* II. ii, 161} 이 환상에 관한 힐데가르트의 설명은 비교적 명확하다. 청색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밝은 빛, 즉 금색의 부분은 적색이나 황색의 선들로써 동심원을 형성하고 있고, 중앙으로부터 무언가가 방사(放射)되고 있는 느낌을 주어 신플라톤 철학의 핵심개념인 ‘유출’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그 외부에는 은색의 동심원이 있는데 성령을 나타내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세 가지 색채로 나타낸 세 요소들은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위계의 표현물이 되었다.

<사파이어 청색 인간>에서 성부는 금색의 동심원, 성자는 사파이어 청색의 사람, 성령은 은색의 동심원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구체적 인물상인 사파이어 청색 사람은 *Scivias* 둘째 책의 둘째 환상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삽화들에서 이 삼위일체의 위계들은 각기 고유한 색채의 동심원으로써만 표현된다. 즉, 다른 그림들에서 성자는 사파이어 청색의 동심원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조합을 나타내는 원은 전해야 할 메시지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동심원으로써 구성된다. 조합된 동심원은 숭고한 차원의 것이어서 캔버스 내 여백, 혹은 위계가 낮은 곳에 배치되는 다른 요소들과는 공간적으로 확실하게 분리되도록 묘사된다.

### III. 도상학적 상징성

중세 시각 예술의 일반적 특징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 세계가 이분되어 표현된다는 점이다. 성과 속, 영혼과 물질, 정신과 신체 등의 대립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이원론적 세계관에서는 전자들에 대한 강조와 선호 및 후자들에 대한 평가 절하와 연결되는데, 두 세계는 캔버스 위에서 각기 자신의 영역을 점유한다. *Scivias*의 삽화에서는 화면상 두 세계가 좌우 대립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상하로 배치되는 위계적이고 평면적인 화면 구성이 일반적이다. *Scivias*에 등장하는 삽화들은 영적인 요소의 강조가 우월하며, 그것은 변별적 색채와 공간배치 등으로써 표현된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사파이어 청색 인간>에서는 단일한 인물상이 중력을 무시하고 공중에 떠있는, 그 공간에선 비교할 수 있는 피조물의 대상은 전혀 없이 차원성이 제거된, 절대 공간과 절대적 실존의 구현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 사파이어 청색 인간은 가장 순수하고 지고함을 암시하는 공간의 정중앙에 배치되었으며, 땅에 발을 딛지 않고 공중에 떠있다. 공중에서 부유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며, 앞으로 전진하여 나오고 있는 듯한 자세로써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이 이미지의 도상학적 특성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비록 후대 르네상스 이후의 기법이지만, 투시도법에 의한 화면구성과의 비교가 도움이 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투시도법에 의해 작성된 그림은 중세의 것과 달리 일의적 공간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초기 투시도 기법에서의 일점 투시도법에서 시선은 하나의 소실점으로 수렴되고, 화면-그림은 화가-창조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고정된 주관적 시각을 전제로 함으로써 다른 시각과 차원을 용납하지 않는다. 보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는 자아중심적인 시각, 관람자로부터 대상물로의 일방향성의 투사적 시각만을 일방적으로 전제하는, 제작자-창조자 혹은 관람자 자신이 이편의 주체가 되는 시각과 생각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파이어 청색 인간>에는 그것과는 다른 공간성이 존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예 삼차원적 공간성을 전제하지 않기에 무엇인가 초월적 차원의

분위기가 강하게 조성되고 있다. 게다가 청색 인간의 눈은 똑바로 그림의 관람객을 향하고 있음으로써 그는 그저 바라보아지는 대상이 아니라 그림 속에서 밖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그의 자세는 전진하여 나오고 있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그림에서 추출하여 다룰 수 있는 주체의 문제, 공간의 연장성 및 방향성의 취급 등의 시각에서 비잔틴 이콘의 특성 및 성상과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발견된다.

<사파이어 청색 인간>의 공간은 비잔틴 이콘 구성과 제작의 정례화된 수법과 연출처럼 화면 저편에서 이쪽으로 연장되고 있다. 이 그림은 성화의 주인공이 화면 안쪽으로부터 이쪽을 바라봄으로써 관람자와 상호 교류를 하여 진정한 교제의 장소를 조성하고 있다. 그것은 참여(communion), 즉 그림 자체가 성사(sacrament)의 주체가 되도록 기능하며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3차원적 의미와 아울러 2차원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찾아 부여할 수 있다. 청색 사 람을 에워싸고 있는 은색 막은 정수리 상부에서 열려 있어 내부의 기(氣)이자 에너지가 외부의 은 색 동심원으로 열려 연결되고 은색 외부 동심원의 일부 역시 사각형 테두리를 침범하고 있다. 이것은 몇몇 특정의 비잔틴 이콘의 화면 구성 수법 중 그림의 일부가 화면을 벗어나 액자 틀에까지 침투, 연장됨과 비교할 수 있다. 비잔틴 이콘과 힐데가르트의 그림은 전하고자 하는 성스러움과 은혜 등, 그 내용을 화면 밖 세상으로 확장시켜 온 누리에 퍼지도록 하고 빈 틈 없이 충전시킴을 상징한다. <사파이어 청색 인간>은 물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그 영역을 연장시키고, 그 성격을 완전히 도치시키는 동시에 영적인 세계로의 승화를 이끌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IV. 힐데가르트의 우주관과 신학적 함의

힐데가르트의 그림들 가운데 그녀의 우주관을 엿보게 해주는 이미지는 동심원으로 표현되는 우 주의 형상이다. 이러한 묘사는 하늘을 둥근 궁창으로 생각하고 해, 달, 행성들이 그에 배치되는 도 식을 떠올리게 한다. <사파이어 청색 인간>에 표현된 지구의 형태는 중세에 널리 퍼져 있던 개념 에 의거하는 구체 형태이며, 지구는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천구들으로써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 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심부에 육화된 하느님의 아들, 즉 성자인 청색 인간을 위치시킴으로써 그 곳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자 근원임을 표현하고 있다.

사파이어 청색의 인물 주위에 동심원적으로 그려진 은색의 파상선들은 플로티누스적 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푸른색의 예수 그리스도는 플로티누스의 일자(One)처럼 중심에 서 있고, 그 주위로 에너지의 파장이 위계적으로 방사되고 있다. 내부의 둥근 황금색 배경 내의 촘촘한 간격의 파상선 과 외부 은색 고리 내의 좀 더 성긋한 파상선들의 간격은 장(場)의 구분과 차이에 따른 위계를 떠올리게 한다.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닦아가야 하는 노력과 의무가 공간적 차원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여겨지도록 의도된 것이다. 정중앙에 배치되어 화면을 지배하고 있는 청색의 인간은 하나의 완전한 인간을 표현하고 있다. 성자, 즉 사파이어 청색의 인 간이 지상에 내려와 현현됨으로써 천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작용과 그의 임무가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배경으로 하며 앞으로 나선 청색 인간인 그리스 도가 우리에게 내민 초대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파이어 청색 인간>은 육화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인간을 하느님의 사랑의 삼위일체의 삶에 초대하고 환영하여 받아들이고자 하며, 관자를 삼위일체와의 만남, 즉 성찬례로 이끌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는 단순히 삼위일체의 교리를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삼위일체 교리가 지니는 구원론적 시각, 즉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 도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의 지평에서 참여와 통교를 통해 구현되는 신비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청색 사파이어 인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느님의 이미지를 둥근 원으로 표현함으로써 모든 것을 포용하는 모성의 하느님을 표현하고, 푸른빛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변모된 그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힐데가르트의 <사파이어 청색 인간>이 이야기하거나 제시하는 성삼위의 이미지는 이처럼 한분이신 하느님이 성삼위로서 상호 연관된 방식, 상호 침투되는 방식으로 통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피조물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육화하신 성자를 통해 우리 가운데 활력 있게 구원 활동을 하시며, 성령의 현존을 통해 그러한 구원 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Hildegard of Bingen*(tr. Mother Columba Hart and Jane Bishop). *Scivias*, Paulist Press, New York/Mahwah, 1990.
- Doyle, Dennis. "Vision Two of Hildegard of Bingen's Book of Divine Works: A Medieval Map for a Cosmic Journey." In *Pacifica*, June 2007, vol. 20 no. 2, 142-61.
- Fox, Matthew(ed.). *Illuminations of Hildegard of Bingen*. Bear & Company, 2002.
- Gage, John. *Colour and Culture*. London, Thames & Hudson, 1993.
- Kemp, Martin. *The Science of Art: Optical Themes in Western Art from Brunelleschi to Seurat*. London, Thames & Hudson, 1990.
- Newman, Barbara. *Voice of the Living Light: Hildegard of Bingen and Her Worl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98.
- 파스트로, 미셸. 『블루, 색의 역사 : 성모 마리아에서 리바이스까지』. 한길아트, 2002.

# 「빙엔의 힐데가르트의 채색화 <사파이어 청색 인간>에 관한 고찰」에 대한 질의문

손 수 연 (목원대학교)

힐데가르트 빙엔의 Scivias 삽화의 <사파이어 청색 인간> 도상학적 상징성과 우주관 및 신학적 함의에 대한 논문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힐데가르트 빙엔의 채색화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학계에서 어떻게 연구되어왔고, 필자께서는 현재까지의 이 채색화 연구의 문제점이나 어떠한 점이 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필자는 <사파이어의 청색 인간>이 방사되고 있는 신플라톤의 철학의 ‘유출’개념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셨는데, 힐데가르트 빙엔 당대의 신플라톤주의의 수용과 이에 대한 베네딕토회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사파이어 청색 인간>에서 인물이 땅에 발을 받지 않고 공중에 떠있는 자세가 삼차원적 공간을 전제하지 않는 초월적 차원의 분위기로 해석하셨는데, 이러한 자세는 중세에 제작된 대부분의 삽화나 성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색 막이 정수리 상부에서 열리고 외부 동심원이 사각형 테두리를 침범하는 예가 비잔틴 이콘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프로시딩 원고에서는 <사파이어 청색 인간> 한 작품만 소개하고, 다른 비교 대상의 미술작품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의 기원이나 의미를 작품을 통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기원하는 도상전통이나 도상의 기원에 대한 설명없이 하느님의 이미지는 등근원이기 때문에 모성의 하느님이고, 푸른 빛의 그리스도는 인간, 은색은 성령으로 연결하고 계시는데 힐데가르트 빙엔 서적에 들어가는 다른 채색화에서 같은 의미의 색의 사용된 예가 있는지, 채색화가 아닌 문구라 하더라도 같은 의미로 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색의 사용의 영향을 받은 당대 다른 미술작품의 예를 들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